**제1세션 : 일본 유학과 근대성**

**사회자:**

최상용(고려대학교)

**주제 및 발표자:**

1) 오쿠보 타케하루(케이오대학), 「마루야마 마사오의 메이지 정치사상사 연구」

2) 코노 유리(도쿄수도대학), 「‘천(天)’의 사상사: 후쿠자와 유키치와 카토 히로유키」

3) 와타나베 히로시(호세이대학), 「마루야마 마사오의 유교 해석에 대하여」

**토론자:**

김영수(영남대학교), 김봉진(기타규슈시립대학교), 이예안(한림대학교), 배병삼(영산대학교)

**최상용 사회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르네상스맨으로서 모든 분야에 깊은 경지에 도달한 분이다. 그의 사상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다.

 (중략)

**오쿠보 다케하루 – 마루야마 마사오의 메이지 정치사상사 연구**

마루야마 마사오의 메이지사상사 연구를 대표하는 두 작품, 「개국」과 「충성과 반역」을 중심으로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국」이라는 작품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칼 포퍼와 베르그송의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닫힌 사회의 특징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떻게 메이로쿠샤(明六社)가 자유주의와 자발적 연대에 뿌리를 둔 열린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충성과 반역」에서는 무사도 정신에 내재된 충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반역과 혁명의 에너지로 전환돼 국가와 인민주권 등 추상적인 원리로 이어지는지를 연구했다.

이 두 연구는 강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나는 특히 다이묘 분국제를 둘러싼 마루야마의 가설에 주목하고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국가이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국가주의와 국제주의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유럽의 경우 내부로부터 주권적 국민국가가 탄생하였으나, 일본은 외부로부터 반 강제적으로 생성됐다는 것이다. 유럽을 향해 국가를 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닫혀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므로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를 개국의 패러독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주자학을 매개로 서양의 자연법적 관념을 수용했다. 이는 양이운동을 극복하고, 근대적 국제 의식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됐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중화라 칭하는 중국에 비해 일본은 고대로부터 어떻게 중국과 대등해질 수 있을지를 연구해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규범이 상실되고, 쾌락이 만연한 전후 사회문제의 극복 가능성을 일본 내부의 전통에서 찾고자 했다.

여기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가설을 세운다. 그는 일본에서 열강을 대체하고 있는 이미지가 비교적 완만하게 수용된 것이 다이묘 군국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무사도의 충성은 봉건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질서화였다. 그러나 열강의 힘을 알게 된 번들은, 국제 사회를 과거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각 번이 독자적인 무장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로 인식하게 되며,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유교적인 천도 관념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일본의 무사도 정신과,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일본 개국 시대의 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국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위로부터 급속히 근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적 전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약해지게 되었다.

**코노 유리 – ‘천’의 사상사: 후쿠자와 유키치와 카토 히로유키**

오늘 나는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이황, 이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폐에 새겨진 사상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먼저 후쿠자와와 가토 히로유키를 대조함으로써 두 사람의 천(天)이란 개념과 이해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서 가토 히로유키와 후쿠자와 유키치는 대조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영미식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원류다. 그는 평등, 존엄을 중시하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 인물이다. 반면 가토의 경우 일본의 제국주의적 사상을 대표한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주장한 천부인권을 후에 비판했으며, 진화론과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어용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에 두 인물은 빛과 그림자처럼 다뤄졌다.

1896년 일본의 대지진 이후, 일본에는 천견론(天譴論)이 등장했다. 천견론이란 자연 재해를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토 히로유키는 이를 비판했다. 그는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천견론을 미신으로 여겼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만을 인정한 가토는 종교 자체를 미신이라 정의한다. 다만 종교의 유용성은 인정한다. 종교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보다 기독교의 교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기독교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단 이런 기독교라 하더라도 천황의 질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종교관도 가토와 비슷한 점이 있다. 후쿠자와는 과학, 물리학, 수리학의 발전을 믿었고 계몽되지 않은 미신, 민간 종교, 주술을 경멸하였다. 미신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유용한 자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닌 일반인은 미신으로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자와가 이야기한 천과 가토가 이야기하는 천은 다르다. 가토가 이야기하는 천칙이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의미한다면, 후쿠자와의 천이란 자연법칙을 탐구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이런 광대한 천은 사람이 만드는 문명 등을 작고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여기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허무주의를 느낀 듯 하다. 후쿠자와는 천의 광대함을 인식하고 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조물주 없이 생성되는 천의 이념으로, 유학에서 말하는 천의 이념과도 유사하다.

 이전에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의 「인간 구더기론(人間蛆虫論)」에 대하여, “인생 전체를 ‘마치’라는 괄호로 넣고 이를 픽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의식하는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휴머니즘의 논리를 아슬아슬한 한계로 몰아붙였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비판적인 평가일 것이다. 마루야마가 후쿠자와에게서 발견한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니힐리즘의 그림자는, 마루야마 자신의 문제의식의 투영이기는 하지만, 후쿠자와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부족한 이 원고가 시사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러한 점이다.

**와타나베 히로시 – 마루야마 마사오의 유교 해석에 대하여**

마루야마 마사오의 네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그의 유교와 유학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루야마 마사오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유교를 논하였으며 그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발표하겠다.

사상가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는 주자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자학이 현실의 봉건적 위계 질서를 자연적 질서로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봉건적 위계 질서를 전복시킬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오규 소라이의 새로운 유학 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주자학은 우주의 입법, 인간의 도덕이 같은 원리로 관통하고 자연원칙은 도덕 규범에 종속돼있다는 일종의 자연법 사상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주자학을 이념이 질서에 매몰되고 그 질서에 사람이 순종하도록 배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오규 소라이의 경우 주체적 인격이 이념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실현한다고 파악했다. 즉 질서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질서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없으면 국가의 자립도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념, 주체, 질서라고 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발생한 이념을 믿고, 그 이념에 자신을 건 주체가 다른 주체와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지, 어떤 질서와 관계하면 좋을지를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그는 현재에서 출발해, 과거로 되돌아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토론1** – **김영수 교수**

▷오쿠보 다케하루 교수에게

「개국」과 「충성과 반역」이라는 글은 내용상 관계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가지를 내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이묘 군국제로, 이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막말 메이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는지는 명료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막말 메이지 시대의 변화를 이끈 주체들은 어떤 생각에 기초해서 행동을 추진해 나갔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기 작품에 의하면 이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겠다. 그는 먼저 일본이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낙관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주자학을 해체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했다. 두 번째로 그는 전쟁, 전후 일본의 사상적 과제인 왜 일본은 진정한 근대화에 이르지 못했는가? 에 대해 연구했다. 여기에는 다케오치 요시미가 마루야마 마사오의 중국관을 비판하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다케오치 요시미는 중국은 근대화 실패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의 근대화를 순진하게 인식했다. 또한 이런 일본 근대화의 문제를 보편적이지 않은 일본의 특수성으로 접근한 것 역시 근대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

▷코노 유리 교수에게

막부시기 정치인의 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기존 정신적 근거가 붕괴한 이후,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다.

가토 히로유키의 경우 크게 국체, 과학에서 그 정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후쿠자와도 비슷했다. 후쿠자와는 자유주의자, 국가주의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후쿠자와는 게이오 대학 성립, 시민 사회 육성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가토의 국체와는 다른 국체를 추구하였다고 본다.

그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허무주의자로서의 후쿠자와는 재미있고 새로운 발상이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일본인의 정서, 인간적인 영역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허무주의자로서의 자세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배우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게 더 나아가면 천황제의 정신적 비판의 이론적 근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에게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학자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연구였기에, 사상가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논의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마루야마 마사오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색다르고 더 나아가면 ‘일본인 됨’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토론2** – **김봉진 교수**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에게

와타나베 교수의 지폐 이야기를 듣고 일본 지폐에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언제 지폐 에서 사라질까, 어떻게 사라질까, 그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그 뒤에는 누가 나타날까 생각했다. 21세기 인물로 후쿠자와 유키치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마루야마 마사오는 특수주의를 싫어하고 원리·이념을 추구했는데, 마루야마가 특수주의의 터울을 제대로 벗지 못한 이유가 후쿠자와 홀림이 아닌가 싶다. 후쿠자와 홀림은 보편원리·이념엔 들어가진 못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일본 사상의 특징이 보편의 특수화 현상이 강한 것이라고 본다. 후쿠자와, 마루야마 마사오 두 분 다 여기서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

 ▷코노 유리 교수에게

 천의 관념을 듣고 느낀 점이다. 정리하기 힘든 두 인물의 천의 관념을 잘 정리해줬다. 다만 가토와 후쿠자와 대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두 인물이 대조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를 대조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능력은 공적이자 한계이진 않을까 싶다. 두 번째로는 유교와 주자학의 오해 현상이다. 일본 사상사에서 유학 주자학의 오해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이것을 하는 것은 특히 한국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토론3** – **이예안 교수**

나는 직접적인 전공자가 아니지만,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에게

 선생님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유학 이념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이념, 질서, 주체라는 개념으로 논지를 전개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주체에 대한 개념이다. 주체는 1,2,3 단계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조금씩 전환되는데, 이는 사회계약설을 염두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이렇게 도식화할 경우, 1단계의 주체를 주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두 번째로는 사상가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실행자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문제다. 만약 마루야마 마사오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고 실천하였을 때, 후대의 해석에 의해 평가가 달라질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토론4** – **배병삼 교수**

 마루야마 마사오의 글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하도록 하겠다. 먼저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관념적/실천적 요소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주희가 한 큰 공헌 중 하나는 맹자의 텍스트를 재발견한 것이다. 맹자의 텍스트는 실천성을 담보한다. 맹자의 유학은 한국의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는 실천성 보다는 상실된 관념론적 요소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생각한 맹자 텍스트가 무엇인지, 일본 사회가 맹자란 텍스트에 거리를 둔다는데 왜 맹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는 한일의 유교가 다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마지막으로 마루야마 마사오가 근대를 해명하기 위해 주자학을 재구성하고, 근대로 표현하였다면, 한중일의 유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지 여쭤보고 싶다.

**답변 1-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

▷배병삼 교수에게

 일본에 있어서 유교의 실천성에 대한 문제는 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사회는 무사가 지배했다. 이 시기에 유학자가 실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일본의 유학자는 조선의 양반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일본의 유교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도 당연히 맹자를 읽는다. 그러나 맹자가 말한 대로 무사가 자신의 주군을 인민을 위해 죽여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도쿠가와 막부에게 그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도 맹자가 널리 읽힌 것은 사실이다.

▷김봉진 교수에게

마루야마 마사오의 연구는 일본의 위대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상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다만 좋은 연구자이고는 싶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답변 2- 오쿠보 타케하루 교수**

 다이묘 군국제를 다룬 이유는 약한 포인트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막말 정치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한 포인트를 다뤄야 정해진 시간 안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약한 포인트를 통해 마루야마 마사오의 논의를 폭넓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논점으로 삼고자 했다.

**답변 3- 코노 유리 교수**

 우선 한국에서 후쿠자와를 언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마루야마 마사오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사상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후쿠자와에 대한 이해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단 어떤 점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

이는 탈아론 때문이다. 탈아론에서 주자학적인 질서는 좋지 않다. 탈아론은 근대적인 질서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친 주장으로, 후쿠자와는 반주자학적이었다. 나는 근대적인 질서관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를 되물어보고 싶었고, 천을 통해 바라보고자 했다. 서로 어긋나는 논점이 있긴 하지만 공유하는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더 논의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다.

▷김봉진 교수에게

가토의 경우 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적인 천, 상제 혹은 신으로의 천, 천도천리의 천이 그것이다. 다만 후쿠자와의 경우 상제, 천도천리의 경지가 가토와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가토, 후쿠자와가 주자학을 떠났지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 최상용**

정답을 모른다는 와타나베 선생이 무섭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알면 알수록 복잡한 사상가, 역설의 사상가, 변증법적인 긴장을 즐기는 사상가인 것 같다.